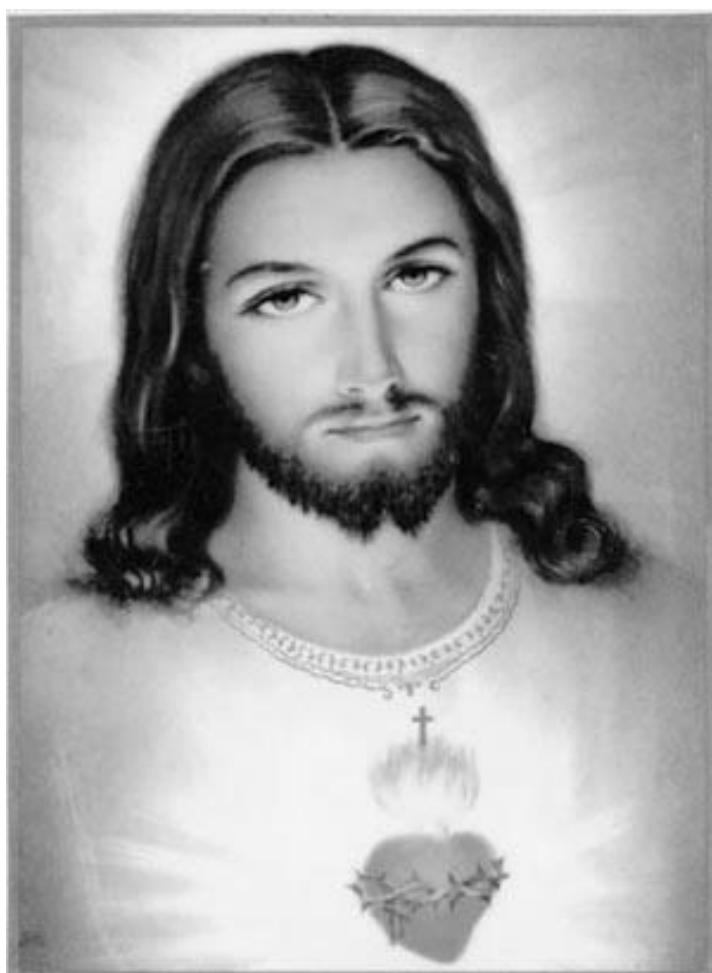


# 만남

2014 6  
통권 185호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주임신부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                           |                            |    |
|---------------------------|----------------------------|----|
| 신부님 칼럼                    | "예수 성심 성월" -----           | 3  |
| 소공동체 모임 자료                | 종교적 권고(코헬렛 4,17-5,4) ----- | 5  |
| 주임신부님 교리                  | 교리 65~67 -----             | 8  |
| 가정 교회                     | 가정성화를 위한 기도문 -----         | 12 |
| 찬 양                       | 주님 나의 목자 -----             | 13 |
| 공동체 소식                    | -----                      | 14 |
| 활동모임시간 및 연락처              | -----                      | 17 |
| 이달의 전례 및 행사               | -----                      | 18 |
|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br>월보 만남지 안내 | -----                      | 19 |
| 미사안내                      | -----                      | 20 |

### 《교황님의 기도 지향》

#### ❖ 일반 지향 : 실업자

실업자들이 품위 있게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도움과 일자리를 찾도록 기도 합시다.

#### ❖ 선교 지향 : 선교 지향 : 유럽의 신앙

유럽인들이 신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그리스도교적 뿌리를 되찾도록 기도합시다.

## "예수 성심성월"

옛날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는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늙으면 깊은 산 속에 내다 버리는 악습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아들이 어머니의 나이가 많아져 고려장의 풍습대로 어머니를 지게에 얹어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이 깊어 길이 험하고 날도 어둑해지자 지게 위에 앉아 있던 노모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나뭇가지를 꺾어 자꾸만 길 위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아들이 왜 나뭇가지를 꺾어 길 위에 던지느냐고 물으니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날도 어두워지는데, 네가 돌아갈 때 길을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런단다."

우리는 흔히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이 바로 '우리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랑은 바로 하느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직접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십니다. 신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좀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제는 그 신이, 인간이 되신 그 하느님께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같은 하느님의 사랑의 극치를 우리는 '예수 성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심장에서 흘러내린 피와 물을 보나벤투라 성인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들에게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을 나타냅니다. 이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은 우리를 죄에서 씻고 깨끗하게 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성심에서 흘러나온 피 안에서 성체성사의 상징을 볼 수 있고 물에서 세례성사의 표징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의 성심에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본질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 성심의 사랑을 닮고자 노력하고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성월에는 예수 성심을 가장 많이 닮아 사랑 가득한 착한 목자가 되어야 할 사제들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기도 드려야 하겠습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사제직은 그 정체성에 많은 변화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과거에 사제는 하느님과 인간의 중재자요, 하느님의 권능에 의해 뽑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제는 따로 많은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생각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제는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제는 신비에 싸여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제는 달변가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제는 사람의 언어가 아닌 하느님의 언어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미사와 성사 집행 외에 사제가 해야 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세계에서 사제의 역할은 도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셨듯이 교회도, 사제도 두 가지 면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사제직의 신성만이 강조되었고 인간적인 면은 감추어져 왔습니다. 이제 그 반작용으로 사제의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다 보니, 사제는 다재다능한 기능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젠 사제직의 신성마저 의심받는 정체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제2의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사제들이 진정으로 예수 성심을 닮은 착한 목자로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 ❖ 종교적 권고(코헬렛 4,17-5,4)

##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1절을 부릅니다.

##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세관장 마태오의 집에 함께 머무신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소서.
- 주님,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실천하게 하소서.

## ◆ 삶의 이야기 (진행자)



## ◆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코헬렛 4장 17절에서 5장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하느님의 집으로 갈 때 네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말씀을 들으러 다가가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이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낫다. 그들은 악을 저지르면서도 알지 못한다. 하느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려 네 입으로 서두르지 말고 네 마음은 텅 비지 마라. 하느님께서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너의 말은 모름지기 적어야 한다. 일이 많으면 꿈을 꾸게 되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온다. 네가 하느님께 서원을 하면 지체하지 말고 그것을 채워라. 하느님께서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좋아하지 않으시니 네가 서원한 바를 채워라. 서원을 하고 채우지 않는 것보다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없을 때는

미사 전례에 참여하기 위해 자기 자신은 평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신앙인에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약 성경의 한 대목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큼니다. “주 하느님께서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이사 50,4-5) 실제로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자주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셨고, 거기서 지

혜와 힘을 얻어 가난하고 지친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며 반대자들의 의혹과 비난에 꿋꿋하게 맞서셨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당신 제자들에게 말씀을 잘 새겨들으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루카 8,15)이 되라고 권고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갈 때 풍성한 열매, 즉 믿음, 희망,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로마 10,17)

### ◆ 사제와의 통교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자유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가톨릭 성가 199번 ‘예수 마음’ 1,4절을 부릅니다.



## 신명기계 신학을 나가며..

신명기계 신학은 선행에는 상이 주어지고 악행에는 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 신학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진실일까? 어떤 점에서 불완전한가? 만일 고통이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한 개인의 고통이 개인적 죄의 결과여야 한다는 것도 사실인가? 왜 그런가? 혹은 왜 그렇지 않은가? 신명기계 신학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고통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 나라의 정부와 기업과 사회생활에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와 기업과 사회생활에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져 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현대의 미디어가 하느님께 대한 진실하고 겸손된 믿음을 반영하는지? 미디어에 등장하는 소식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기도하거나 하느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는지? 과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대중 매체를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께 대한 불신앙이 우리의 사고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당신이 당신의 가정과 가족과 친구의 모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 교리65

### 성경 길잡이 (34)

#### 역사서, 유배 시대 이후 - 역대기 저자

유배 후 유다이즘 역사의 많은 부분이 역대기 저자라고 하는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저작자의 작품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그는 기원전 4세기에 살았던 사람을 유다의 재건 공동체를 위해 작품을 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그가 인용하는 많은 다른 책들뿐만 아니라 모세오경과 신명기계 역사의 중요한 내용을 원천적 사료로 이용하였습니다. 역대기 상·하권, 에즈라기, 느헤미야기가 포함된 그의 작품들은 이상화된 구세사로 분류됩니다.

역대기 상·하권은 모세오경과 신명기계 역사와 같은 시대의 역사를 다루지만, 역대기 저자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었으니, 즉 4세기 유다 지역의 유다인에게 하느님의 법에 대한 사랑을 강화하고 하느님께 대한 순종만이



살아남는 유일한 희망임을 가르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했고, 하느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심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영웅적 행위에 주의를 집중하는데, 그들의 나약함에 대해서는 모르는 체하였습니다. 그는 신명기계 저자보다 더욱 강한 어조로 덕행은 보상을 받고 죄는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쳤으며 예루살렘 성전이 으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남아 있는 사람들, 곧 유대인 재건 공동체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자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과거 우리의 위대한 영웅들을 바라보십시오. 어째서 악은 늘 처벌되어 왔고 선은 보상을 받아 왔는지를 깨달으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는 유대인에게 미래에 대한 이상을 제시하고자 과거의 상황을 이상화하여 서술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작품들이 이상화된 구세사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 교리66

### 성경 길잡이 (35)

#### 역대기 상·하권

역대기 상권은 창조 때부터 유배시대까지 인간의 역사를 족보를 이용하여 요약하였습니다.(1역대 1,1-9,34).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는 다윗의 삶에서 뽑은 자료가 담겼는데, 특별히 성전 예배와 다윗의 관계를 강조하고, 성전 일을 맡길 관리들의 긴 명단을 자세히 기록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강조하려는 보충 내용을 실었습니다.(1역대 9,35-29,30)

역대기 하권은 솔로몬의 통치와 성전 건축을 이상화하는 관점에서 시작되며(2역대 1-9장), 먼저 북쪽 지파들이 반기를 든 데 대해 언급하고 나서 예로보암으로부터 예루살렘 함락까지의 남쪽 유다 왕국에 초점을 맞춥니다. 많은 자료가 열왕기 상·하권에서 취해지는데, 저자는 그 자료들을 자기의 특별한 목적에 맞게 개작합니다.

####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들은 성서학자들이 연

구한 연대기에 따라 위에서 약술하였습니다. 이 책들을 저술하는데, 역대기 전자는 에즈라와 느헤미야의 전기를 사용했으며 일부 자료들을 순서에 상관없이 정리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신학적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책이 다 자료들의 구조적 재구성을 시작으로 해서 공동체 개혁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를 통해 듣는 이야기들은 특히 일인칭 형식의 전기로서 생기가 넘쳐나고 흥미롭습니다.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는 다른 문헌들과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역사적 정보를 많이 제공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신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권과 마찬가지로 이상화된 구세사로 간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현대의 독자들이 역대기 저자의 영적 목적에 관심을 기울일 때 역대기 상·하권,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에서 최상의 소득을 얻습니다. 우리는 역대기 저자가 하느님께 바치는 공경심을 본받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활동에 대한 그의 주의력을 통해 하느님의 섭리에 더욱 더 정신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조상의 우유부단함이 인정되는 때라도 그들을 향해 그가 보여주는 사랑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보상과 처벌에 대한 그의 근본적 개념은 수정되어야 하지만, 의무와 순종에 대한 그의 열정적 태도는 열심히 본받아야 합니다. 특히 성전에 대한 그의 깊은 신앙심은 하느님을 온전히 숭배할 마음을 우리 안에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 교리67

### 성경 길잡이 (36)

#### 종교 역사 소설

유배 생활에 이어지는 격동의 세기는 오늘날 가톨릭 성경에서 느헤미야기 다음에 등장하는 세권, 즉 토빗기, 유딧기, 에스테르기의 배경입니다. 이 책들은 역사서 가운데 놓여 있지만 종교 역사 소설로 분류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역사소설은 실질적인 역사적 사건의 상황 속에 설정한 가공 인물들에 환한 이야기를 엮어 가는 책들입니다. 이러한 책들은 과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장인물의 시각과 정신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체험하게 해 줌으로서 사학적 탐구로는 가능하지 않는 방식으로 옛 시대의 삶을 인지하고, 옛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종교 역사소설은 초자연적 문제와 영신적 메시지에 관심을 두는데, 바로 이점이 토빗기와 유딧기와 에스테르기의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책들에는 저자들이 한 시대를 다른 시대에 연결시키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테르기에 보면 주인공 모르도카이는 기원전 597년에 바빌론으로 강제 이송되었다고 했는데,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통치 기간(기원전 485-464년)에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또한 유딧기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당시 바빌론의 임금이었다가)가 아시리아의 임금으로 유배지에서 귀환하고 유다와 전쟁을 벌인다고 합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이 같은 특징과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통해 드러나는 사실은 저자들이 역사에 구애받지 않으려 했으며 학술 문헌을 만들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안네 신부

## 가정성화를 위한 기도문

주 하느님,  
 하늘과 땅 위의 모든 가정은 당신에게서 생겨났습니다.  
 하느님아버지, 당신은 사랑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사랑의 샘이신 성령을 통하여,  
 지상의 모든 가정이 세세대대로  
 생명과 사랑의 참 성소가 되게 하소서.  
 당신 은총으로써 부부의 생각과 행위를  
 자신과 온 세상 모든 가정의 선익으로 이끌어 주소서.  
 젊은이들이 가정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  
 진리와 사랑 안에서 건실하게 자라나게 하소서.  
 사랑이 혼인성사의 은총으로 견고해져,  
 우리 가정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소서.  
 나자렛 성가정의 전구로써, 가정 안에서 가정을 통하여  
 세상에서 교회가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소서.  
 생명이시고 진리이시며 사랑이신 당신께  
 성자와 성령과 더불어 이 모든 것을 간구합니다. 아멘

※ 이 기도문은 교황 요한바오로2세께서 1980년 시노드(주교회의)에 즈음해서 만드신 것으로서, 모든 신자에게 가정성화를 위한 기도문으로 열심히 사용할 것을 권고하신 것입니다.



## 208

## 주님 나의 목자

시편 23 / 현정수 신부

주님 나의 목자 아 쉬  
 울 것 없 노 라  
 파란 풀밭에 이 몸 누어 주시고 물가  
 로 나를 끌어 주시네  
 1. 내 영혼 싱싱하게 생기고 돌아 곧 자라 나고 주님  
 2. 원수 들 보는 앞 에 친히 상을 차려 주시고 향기  
 영광 위해 친히 지름길로 나를 인도 하네  
 흠발라 주시니 내 슬 잔 넘치도록 가득 해  
 죽음의 그늘 - 진 골짜기 간 다 해 도  
 파란 풀밭에 나 를 이 몸 누어 주시고  
 당신 함께 계셔 무서울 것 없 나 니  
 물가 로 나 를 - 이 끌어 - 주시 네

❖ 6월 함부르크 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                             |                                               |     |                     |                          |
|-----|-----------------------------|-----------------------------------------------|-----|---------------------|--------------------------|
| 1일  | 유스티나<br>(St. Justina)       | 홍영숙                                           | 29일 | 베드로<br>(St. Petrus) | 김부남<br>이영원<br>최윤석<br>민호건 |
| 13일 | 안토니오<br>(St. Antonio)       | 김현규                                           |     | 페트라<br>(St. Petra)  | 김상미                      |
| 22일 | 토마스 모어<br>(St. Thomas More) | 김서울                                           |     | 파울라<br>(St. Paula)  | 최영자                      |
| 24일 | 세례자 요한<br>(St. Johannes)    | 김성철<br>김민규<br>남궁경<br>박진태<br>최현봉<br>박재형<br>박찬진 |     | 바오로<br>(St. Paulus) | 송문규<br>이민재<br>배재태<br>진종래 |

❖ 6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                         |        |     |                     |                  |
|-----|-------------------------|--------|-----|---------------------|------------------|
| 24일 | 카타리나<br>(St. Catherine) | 고희경(B) | 29일 | 바오로<br>(St. Paulus) | 최한우(O)<br>임완규(O) |
| 29일 | 베드로<br>(St. Petrus)     | 강동환(H) |     |                     |                  |

❖ 세상을 떠난 교우를 생각합니다. ❖

|           |                                     |
|-----------|-------------------------------------|
| ☞세월호의 희생자 | (주님, 세상을 떠난 모든 이에게<br>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

❖ 우리들의 정성 ❖

| 주 일  | 5월 4일  | 5월 11일 | 5월 18일 | 5월 25일 |
|------|--------|--------|--------|--------|
| 계(€) | 170.23 | 205.41 | 239.35 | 200.75 |

## ❖ 6월 성가번호

| 6월  | 입 당 | 봉 헌      | 마 침 |
|-----|-----|----------|-----|
| 1일  | 137 | 210      | 136 |
| 8일  | 143 | 399, 219 | 209 |
| 15일 | 81  | 211      | 83  |
| 22일 | 178 | 215      | 399 |
| 29일 | 291 | 217      | 290 |

## ❖ 6월 미사 전례 봉사자 ❖

| 6월  | 독 서                       | 제 병 봉 헌                | 복 사                       | 카페<br>봉사   |
|-----|---------------------------|------------------------|---------------------------|------------|
| 1일  |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br>김매자(베로니카) | 김부남(베드로)<br>박우연(루치아)   | 김진호(프란치스코)<br>이현묵(요셉)     | 3구역        |
| 8일  | 백정선(토마스)<br>이영자(헬레나)      | 김형웅(야고보)<br>김정자(젼마)    | 본당의 날                     |            |
| 15일 | 이선주(로사)<br>박주영(비비안나)      | 임예진(모니카)<br>심은희(안나)    |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br>곽케빈(요셉)   | 4구역        |
| 22일 | 최화영(시몬)<br>최종금(로사)        | 이명원(베드로)<br>김정옥(크리스티나) | 최장용(레오)<br>김진호(프란치스코)     | 요셉<br>마리아회 |
| 29일 | 김형웅(야고보)<br>김정자(젼마)       | 김치수(도밍고)<br>김영희(클라우디아) |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br>박주영(비비안나) | 1구역        |

## ❖ 자진헌납금 ❖

4월28일 - 5월25일 자진헌납금 납부자 명단 :

육종인, 진윤희, 이철우, 현영애, 정정숙, 박재형, 박귀동, 이기열, 손대조, 손수희,  
우동천, 윤예진, 윤용기, 이경구, 이공종, 이수웅, 임정희, 김부남, 김형웅, 배성우,  
한말조, 민경화, 이영희

구좌입금 : 허두욱, 김치수, 곽케빈, 허길조, 김진호, 김대현, 홍경영, 서유미, 최성자,  
최형식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회장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 우리가 해야 할 일들

1. 6월 8일(주일)은 성령강림 대축일이며, 저희 모든 공동체의 날(본당의 날)입니다. 본당의 날 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언제 : 6월 8일(성령 강림 대축일) 10시 30분까지. 주일 미사 11시.
  - 2) 어디서 : Pflanzen un Blumen in Hamburg
  - 3) 주차장 : Pflanzen Blumen
  - 4) 준비물 : 하나를 지향하는 성심, 돛자리
2. 6월 9일(월)부터 13(금)은 유럽사목자 회의가 있는 주간입니다. 이 주간 평일 미사는 없습니다. 출장가시는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 6월 27일(금)부터 29일(주일)까지 오슬로 공동체 방문주일입니다. 29일주일미사는 독일 본당에서 주일을 지내시길 권고합니다.
4. 2015년부터는 모든 Konto 번호를 IBAN으로 사용합니다.

만남 성당 계좌번호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계좌 번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현납금 입금 시 유의,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형식대로 하지 않으면 입금하실 수가 없습니다.

## ❖ Bremen 공동체 소식

##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하노버 공동체에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00시에 소공동체 기도 모임을 안토니오 성당에서 갖습니다.
2. 요한과 도미니카의 졸업연주가 24일(화), 25일(수)에 각각 있습니다.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5월 정기미사는 5월 10일(토)에 부활 제4주일 주일 미사로 봉헌되었습니다.
2. 임소영(모니카), 부준우(프란체스코)의 첫 영성체가 있었습니다.
3. 성모 성월을 맞이하여 5월 공동체 <성모님의 밤> 기도모임을 24일(토) 16:00시, 미사와 함께 성당에서 하였습니다.



|             |                     |                      |        |             |                |                                  |
|-------------|---------------------|----------------------|--------|-------------|----------------|----------------------------------|
| 사 목 협 의 회   |                     |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 만남성당   | 회 장         | 한 말 조<br>마리안나  | 040/ 5069 7342<br>0157 7021 0466 |
| 구 역 장 모 임   |                     | 매월 넷째 주일미사 후         | 예수성심성당 | 구 역<br>분과장  | 회장단            |                                  |
| 주 일 학 교     |                     | 매주 주일미사 후            | 예수성심성당 | 교 사         | 이 선 주<br>로 사   | 0176 7636 2699                   |
| 연 령 회       |                     | 매월 넷째 목요일<br>17시 00분 | 만남성당   | 회 장         | 김 진 호<br>프란치스코 | 040/ 3742 0006                   |
| 레 지 오 마 리 애 | 믿음의 샘 Cu.           | 매월 첫째 목요일<br>평일미사 후  | 만남성당   | 단 장         | 강 순 행<br>말가리다  | 040/ 297 543                     |
|             | 자비의 모후 Pr.          | 매주 화요일<br>17시 30분    | 만남성당   | 단 장         | 이 순 자<br>마 리 아 | 040/ 732 1104                    |
|             | 평화의 모후 Pr.          | 매주 수요일<br>평일미사 후     | 만남성당   | 단 장         | 김 영 희<br>클라우디아 | 040/ 532 4138<br>0177 724 6335   |
|             | 사랑의 모후 Pr.<br>(청년반) | 매주 화요일<br>평일미사 후     | 만남성당   | 단 장         | 박 성 아<br>베로니카  | 0176 8011 2329                   |
| 구 역         |                     | 1구역                  | 구역장    | 최 화 영 시 문   |                | 8903264                          |
|             |                     |                      | 총 무    | 김 정 숙 마르타   |                | 8322587                          |
|             |                     | 2구역                  | 구역장    | 허 채 열 크리스티안 |                | 5709734                          |
|             |                     |                      | 총 무    | 김 수 희 모니카   |                | 04106-72958                      |
|             |                     | 3구역                  | 구역장    | 김 형 웅 야고보   |                | 6310912                          |
|             |                     |                      | 총 무    | 김 정 자 잼 마   |                | 6310912                          |
|             |                     | 4구역                  | 구역장    | 정 명 옥 살로메   |                | 6448623                          |
|             |                     |                      | 총 무    | 이 순 자 마리아   |                | 41091742                         |

## ❖ 2014년 6월(예수 성심 성월) ❖

| 일  | 요일 | 전례일                                        | 기관단체 행사       | 비고        |
|----|----|--------------------------------------------|---------------|-----------|
| 1  | 일  |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 주일)                           | 사목협의회         |           |
| 2  | 월  | 부활 제7주간 월요일<br>단오                          |               |           |
| 3  | 화  | 성 가롤로 르왕가와 동료<br>순교자들 기념일                  |               |           |
| 4  | 수  |                                            |               |           |
| 5  | 목  | 성 보나파시오 주교 순교자<br>기념일                      |               |           |
| 6  | 금  | 현충일·망종                                     | 1구역 소공동체      |           |
| 7  | 토  |                                            |               | 브레멘 미사 없음 |
| 8  | 일  | 성령 강림 대축일                                  | 본당의 날         | 함부르크      |
| 9  | 월  | 연중 제10주간 월요일                               | 유럽사목자 회의 -13일 | 본당 신부님 출장 |
| 10 | 화  |                                            |               | 평일 미사 없음  |
| 11 | 수  | 성 바르나바 사도 기념일                              |               |           |
| 12 | 목  |                                            | 마리아 요셉회 소공동체  |           |
| 13 | 금  |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사제<br>학자 기념일                   | 2구역 소공동체      |           |
| 14 | 토  |                                            |               | 오스나브뤽     |
| 15 | 일  | 삼위일체 대축일                                   | 청년부 소공동체      |           |
| 16 | 월  | 연중 제11주간 월요일                               |               |           |
| 17 | 화  |                                            |               |           |
| 18 | 수  |                                            |               |           |
| 19 | 목  |                                            |               |           |
| 20 | 금  |                                            | 3구역 소공동체      |           |
| 21 | 토  | 성 알로이시오 곤자가<br>수도자 기념일<br>하지               |               | 하노버       |
| 22 | 일  | 그리스도의 성체성혈<br>대축일(민족의 화해와<br>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               |           |
| 23 | 월  | 연중 제12주간 월요일                               |               |           |
| 24 | 화  |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               |           |
| 25 | 수  | 6·25 사변일                                   |               |           |
| 26 | 목  |                                            | 연령회           |           |
| 27 | 금  | 예수 성심 대축일<br>(사제 성화의 날)                    | 4구역 소공동체      | 오슬로 공동체   |
| 28 | 토  |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br>기념일                     |               |           |
| 29 | 일  |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br>대축일(교황 주일)              |               | 주일미사 없음   |
| 30 | 월  | 연중 제13주간 월요일                               |               |           |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목회장      한 말 조    마리아나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040 24 34 92  
Fax.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       |                            |                                                |
|-------|----------------------------|------------------------------------------------|
| 발 행 인 | 최 종 태    요한마리아비안네<br>본당신부님 | viannae@hanmail.net<br>H.P : 0176 8464 7981    |
| 편 집 인 | 남궁춘배    바로톨로메오             | cbnamgoong@hanmail.net<br>H.P : 0176 3900 7430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내용은 함께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시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금요일 각 소공동체 17시 30분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 지방 공동체

### Bremen

시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회장 : 서선영(아우구스티노), Tel : 0421 255162

### Osnabrück

시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장 : 최한우(바오로), Tel : 0541 37027

H.P : 0157 5436 0230

### Hannover

시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회장 : 이범이(바오로), Tel : 0511 748945